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은해사 조실 혜인대종사, 승가의료기금 1천만 원 기부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동곡문도회는 지난 6월 원적에 든 혜인스님의 유지를 기려 동국대학교의료원에 승가의료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은해사 주지 돈관스님은 “수행과 포교활동 중에 신체적 질병과 통증이 있어도 병원의 고액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스님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기부했으면 좋겠다는 혜인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기부하게 되었으며, 오늘의 기부가 작은 씨앗이 되어 기부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혜인대종사는 2012년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조실을 지내셨으며, 2014년부터는 은해사 기기암 선원에 주석하면서 수선안거 하던 중 지난 6월 23일 세수 75세, 법랍 62세로 원적에 들었다.



02 동국대학교병원, 베트남에서 국제봉사활동 펼쳐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 연합회(회장 심산 스님)봉사단과 함께 8월 9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 중부지역 땀끼시에 있는 국제연꽃마을에서 무료진료 및 건강관리교육 등을 시행했다.

봉사에 참여한 총 6명의 의료진들은 땀끼시에 도착하자마자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전 이사장인 각현스님(1944~2014)이 베트남 어린이들을 위해 설립한 한글학당이자 복지타운인 국제연꽃마을에 약품과 진료재료 등 13박스의 의료물품을 풀고 진료를 시작했다. 연일 최고의 더위가 맹위를 떨치던 날이었지만 아픈 곳이 있어도 마땅히 상담할 곳이 없었던 현지인들은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료소에 물밀듯이 찾아왔다. 특히 이번 봉사는 해외봉사 경험이 많은 성낙진 교수가 중심이 되어 진료가 끝난 후 현지 환자들의 질환군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진료를 준비하여 진료가 무르익을수록 환자에게 맞춤형 진료가 가능하여 만족도가 높았다. 무료진료와는 별도로 파라미타 지도 교사와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건강관리를 위해 아이들에게 손을 씻고 이를 닦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컵등, 합장주, 제기 만들기와 한복체험 등을 실시하여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03 일본 아이치가쿠인 약학대학 본원 양·한방 약제팀 견학

동국대학교 약학대는 지난 8월 18일 일본 아이치가쿠인 약학대학교 교수 및 학생 13명과 함께 본원 양·한방 약제팀을 방문했다.

이번 견학은 본교 약학대학과 일본 약학부간 하계 단기연수 국제 교류프로그램 시행 차 방문됐다. 일본약학대 학생일행은 본원의 약제 시스템과 일본 병원약국 시스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 보며 양국 약사의 현황과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질문 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일본은 한방진료체계가 없어 본원의 양·한방 협진 시스템에 큰 호응을 보이며 체계적인 약제 시스템에 감탄했다.

한편, 약제팀에서는 향후 약대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동국대 약대생은 물론 의대생들의 항암제실 참관교육 등 외부 교육생들에게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